



봤느냐! 10-10-10 여자양궁 연장 대역전 금메달

21일 광주 아오티 양궁경기장에서 열린 양궁 여자 결승 한국-중국 경기에서 주현정(현대모비스)과 기보배(광주광역시청), 윤옥희(예천군청)가 우승이 확정되자 중국의 마지막 사수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18·19면 /연협뉴스

전남대 의예 364~366점

상위권대학 인기학과 합격선 5점 안팎 하락할 듯

광주 진학부장협 분석

올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 합격선이 원점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점 안팎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광주지역 인문계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의 모임인 '광주 진학부장 협의회'(광진협)가 지난 19일 광주 수험생 2만여명의 2011학년도 수능성적을 가채점, 분석한 결과다. <관련기사 6면> 광진협은 상위권 기준으로 서울대 인문계 지원 가능점수(원점수 400점 만점 기준)는 377점, 자연계는 340점이 될 것으로 점쳤다. 전남대 인문계는 294점, 자연계는 245점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경영대학의 합격점수는 385.4점, 자유전공학부는 383점, 사회과학 계열은 383.4점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383점, 382점대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점 안팎 낮아진 것이다.

자연계열에서는 의예과가 최고 합격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대가 작년보다 6점 가량 떨어진 387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연세대는 385점,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384~386대를 오갈 것으로 관측됐다. 전남대 의대는 364.4점, 동신대 한의예과는 362점대로 파악되는 등 지난해 보다 5~7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 입시전문 기관인 대성학원·진학사·이투스정출 등은 서울대 경영대에 합격하려면 380점대 후반 점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

대성학원이 서울대 경영대 합격선을 388점으로 가장 낮게 제시했고 진학사와 이투스정출이 각각 390~391점, 389점을 예상했다. 또 연세대와 고려대도 경영계열 합격선이 380점대 중후반 점수를 형성해 작년보다 3점 안팎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가 작년보다 4~6점 떨어진 380점대 중반(384~387점), 연세대는 380~388점, 고려대는 376~386점, 성균관대는 380~384점, 한양대 376~380점 등으로 작년 예상 합격선(최고점)과 비교할 때 4~5점 정도 낮아질 것 같다는 게 입시학원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광진협 한철민(송덕고) 회장은 "수능이 작년보다 어려워 문·이과 계열 모두 합격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과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리 가형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의예과 등은 합격선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주요대학 지원가능 예상 점수

대학	학과·학부	예상점수
전남대	의예과	364.4~366
	영어교육과	340~342
동신대	한의예과	362
	경영대학	385.4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383
	사회과학계열	383.4
	국어교육	378.2
	의예과	387
연세대	경영	383
	자유전공학부	380
	영어영문	378
	의예과	385
고려대	경영	382
	정경대학	381
	자유전공학부	380
	의대	384~5

광진협은 그러나 이번 자료는 광주 학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 원점수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다 대학별로 영역별 가중치도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이 입시전략을 짜는데 단순한 참고용도만 활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윤영기자 penfoot@

공동복지회 회장·이사 전원 사퇴

보건부 감사...비리 물의 책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전원도 성금 분실과 공공유용 등 직원들의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로 물의를 빚은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공동모금회는 21일 "윤병철 모금회 회장과 박을중 사무총장, 이사회

이사 등 20명이 최근 이사회에서 공동모금회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전원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금회 부회장이던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3명도 사의를 밝혔으나 모금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서 후임 이사회가 선임되면 그만두기로 했다. /김호기자 kimho@연협뉴스

알림

팝아트 거장 키스 해링展



(사진제공=키스 해링 재단)

뉴욕 지하철의 낙서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팝아트 거장 키스 해링(Keith Haring·1958~1990)이 올 겨울 광주에 온다. 광주일보사는 32세로 요절한 미국출신의 천재예술가 키스 해링의 예술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전'을 개최합니다. >관련기사 12면

12월8일 광주 개막
 대표작 150점 전시

光州日報社

- 기간=12월8일~2011년 2월27일(화~목·일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7시, 금요일·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 장소=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 요금=일반 1만원, 청소년 8천원, 어린이 6천원
- 주최=광주일보사·광주시립미술관·매일경제신문사
- 주관=엠펙스트
- 후원=문화체육관광부·주한미국대사관·유니세프한국위원회
- 문의=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062)613-5391

광주시립미술관·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키스 해링 사후 20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아이콘' '팝샵(Pop shop)', '앤디 마우스(Andy Mouse)' 연작 등 대표작 150여 점이 선보입니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전시회로는 최 대규모입니다.

키스 해링은 앤디 워홀과 함께 20세기 팝아트(Pop Art)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인 작가로 거리의 벽면이나 지하철 광고판 등에 낙서를 그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팝아트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키스 해링전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남 건설사 4곳 중 1곳 행정처분

올들어 270곳 사상최대...경영난 속 이종고

공사 물량 급감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전남지역 건설업체 4곳 중 1곳 이상이 실적 및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다.

21일 전남도와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전남지역 종합건설업체 239곳이 등록기준 미달 등 별도 영역별 가중치도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이 입시전략을 짜는데 단순한 참고용도만 활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윤영기자 penfoot@

이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70곳으로 전체 종합건설업체(986개)의 27.4%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년 단위의 231개 업체를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공사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가 207개 업체, 등록취소 32개 업체, 지난해에는 영업정지 208곳, 등록취소 23곳이었다.

이같은 사상 최대 행정처분은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공사 물량 감소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공사의 비중이 큰 전남지역의 경우 4대강 사업에 정부 예산이 쏠리면서 공사 물량이 크게 감소한다 지역 대표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가 예년

의 경우 평균 900건 정도인데 비해 올

해는 600건으로 공사물량이 3분의1 가량 줄어들었다"며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된다 조기 집행으로 중소기업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등록기준 등 심사를 강화하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건설경기 불황으로 실적도 좋지 않은데다 등록심사까지 강화돼 중소기업들이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www.kgrc.ac.kr
수시2차 신입생모집
 2010.11.04~12.02
 입학문의 (061)330-7323-5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정시모집 12월17일~22일
 가 군원사접수 11월 2일~23일
 각대학원원사접수 11월 2일~23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천년행복처럼
 천년은행을 꿈꾸며

지역민들과 고객 여러분의 한 없는 사랑과 격려 속에
 광주은행이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968년 창립 당시 최초 본점 ▶ 현재의 본점 ▶

2008. 12. 19. '2008노사문화 대상' 노동부장관상 수상 / 2009. 4. 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동부장관상 수상 / 2009. 12. 10. '2009 아시아금융문화대상' 종합 대상 수상
 2009. 12. 16. '제14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2010. 3. 4. 2010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대상 수상 / 2010. 11. 23.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예정)

KJB **광주은행**